

지 상 법 석

“웃는 얼굴 좋은 말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⑩

縱有多智禪定現前 亦落邪見外道
종유다지선정현전 역락사마외도
可知持戒的重要
가지도지계적중요
持戒的人 龍天擁護敬畏
지계적인 용천옹호의경외
破戒的人 鬼言大賊 掃其足跡
파계적인 귀언대적 소기족적
從前 在別處 近岩僧伽藍的地
從前 재계빈국 근학승가람적지

독룡이 문득 멀리 가버렸다.
여러 나한들이 이 스님께 문기를 무
슨 신통으로 독룡을 쫓았습니까 하였다.
이 스님 이르기를, 나는 선정의 힘으
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계율을 삼가 지
켜서
가벼운 계율이라도 마치 중계인양 수
호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오백아라한의 선정력
이 계율을 엄격히 지킨 한 스님에 미치
지 못하는 것 같다.

비록 많은 지혜와 선정이 나타내려라
도 역시 사마외도에 떨어질 것이니
계를 지키는 이는 용과 하늘이 용호
하고 사마외도가 공경하고 두려워 한다.
계를 깨는 사람은 귀신들도 도적이라
말하며 그 족적을 쓸어 버린다.
전에 계빈국에 가람 터가 있었는데

或云 六祖說 心不可對持戒 行則可用
혹은 육조설 심평하로지계 행칙하용
參禪
참선
我講禪心已平 並沒有
아침문이적삼이평적불유
有箇月裏 始能身離 離則心動
유개월리 상아적신로체포착이
離能不動心嗎
이능부동심마
有人無理 痛打禪 離能不生 恨心嗎
유인무리목욕통타이 이능불생진한심마
유인무리목욕통타이 이능불생진한심마
혹은 이르기를, 육조스님께서 마음이

有條毒龍 時常出來 爲害地方
유조독룡 시상출래 위해지방
有五百位阿羅漢 聚在一起
유오백위아라한 취재일기
用禪定力 去驅逐他 總沒法把他趕跑
용선정력 거구축타 총법과타간데

“마음을 평안하게 행동을 끈게하고
가벼운 계율도 중계처럼 엄격히 수호”

從來有一位信人 也不入禪定
후래임유일위승인 아불입선정
備對那毒龍說了一句話
근대나독룡설로일구화

평안하면 어찌 계를 지키에 노고가 있
으며 행동이 곧으면 어찌 참선에 힘쓰
라 하였다고 했다.
내가 묻노니 그대의 마음은 평안하고
바른가.

독룡이 때때로 나타나 그 지방을 해
치므로
오백명 아라한이 한번에 모여들어
선정의 힘으로 독룡을 내쫓으려 했으
나 도무지 내쫓지를 못했다.
후에 한 스님이 와서 선정에 들지 않
고서 독룡을 상대로 한 구월 설하기를

만일 달밤에 아리따운 여인이 벗은
몸으로 그대를 깨안는다면
그대는 능히 부동심일 건가.
어떤 사람이 그대를 이치에 맞지않게
욕하고 매도한다면 그대는 능히 노여워
하지 않을 건가.

賢善處比處去 那毒龍更難跑了
현선원처치거 나독룡변원게로
來禪明那信人 甚覺神通把毒龍趕跑
종나현문나승인 심아신통과독룡간제
他說 我不以禪定力 而以謙讓於戒
타설 아불이선정력 직이근신에게
守戒戒成 猶如重擔
수계계성 유여중금
我們想想 五百位阿羅漢的禪定力
아문상상 오백위아라한적선정력
也不及一位嚴守戒法的信人
아불급일위승수계적승인

能多不分別怨親憎愛 人我是非嗎
이능구불분별 원친증애 인아시비마
統統作得到 才好開口 否則不要說
통통작득도才好開口 否則不要說
空話
공화

그대는 능히 원수와 친구, 미움과 사
랑, 나와 남, 음음과 그름을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에 이르렀다면 입을 여는 것도
좋지만 아니라면 헛소리하지 말지어다.
龍 眼

어진이여 예서 멀리 떠나가라 하며

서호청공강남리 (西湖清公江南來)
학비장천철우가 (鶴飛長天鐵牛駕)
한래한거무타사 (閑來閑去無他事)
월조전곤허공무 (月照空虛無事舞)

서호의 맑은 비람 강남에서 불어오니
면 하늘 학이 날고 쇠소와 기러기
한가로이 오고가니 다른 일이 없어
하늘 땅 가득 비춘 달빛 허공에서 춤을
추네.

참으로 오래전에 내가 열기충만하던 그
시절에 지은 것입니다. 그때 나는 파계사
금당선원의 말석에서 안거를 지내고 있었
습니다. 성전(聖殿)에 성철 스님이 계시던
때였고 정진하는 수좌들의 눈빛이 모두 형
형하던 시절이었지요. 수좌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 다섯명 정도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 밤이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선선히
불어 오는 미풍에 몸을 맡기고 선정에 드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더기 무더기 별빛
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기운을
호흡하고 들끓는 번뇌를 벗어 던지기 위해
회두를 들고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음력 6월 보름이었는데 무척 더
웠습니다. 나는 저녁 공양후 정진을 하다가

“물고기 사서 놓아주는 일
오히려 환경만 해칠뿐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축생미를 볼 때마다
‘좋은세상 환생하라’
축원이 바른 방생이죠”

조용히 밖으로 나가 숲 속에 앉았습니다.
술바람이 고요히 불어 오는 그 적막한 시
간에 나는 은사스님이 내려 주신 ‘무(無)’
자 회두를 들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유
와 무의 양면을 왕래 하면서도 한곳에 치
우치지 않으며 무학무애(無着無礙)의 큰
길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적(寂寂)의
시간에 불현듯 떠 오르는 보름달을 보았습
니다. 그리고 가슴가득 들어서는 기쁨이 있
어 혼자 일어선 춤을 추었지요.

어제 기간중 그대의 열락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음미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재주로 그 열락을 표현해 은
사이신 동산스님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문득 스승께서 얼마나 가소
로와 하실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군요.

해제를 해서 먼저 범어사로 달려 갔습니
다. 은사님을 뵈기 위해서요. 스님은 내가
심재를 올리는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더
니 조용히 입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견방을 부렸다고 호흡을 치실 것같이 마음
을 조리고 있었고요.

덕명스님
한적사주진

약 력
· 1926년 울산 생
· 49년 범어사서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해인사 범어사
강원서 이력마침
·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및 중
앙총회의원, 범
어사 주지(78년)
역임
· 78년 부산불교연
합회 창립



“그놈 제법 도둑질을 하겠어.”
호통이 아닌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이
칭찬인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스
님께 절을 하며 “이왕이면 큰 도둑으로 키
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님께
열심히 공부하란 말씀을 듣고 물러 나
왔는데 아직 그때의 말씀과 그 조용한 모
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내 얘기
가 길었군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도 열심히 정진하란 뜻에서 옛날 얘기
삼아 한 것입니다.
오늘 법회에서 나는 방생의 참의미를 말
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오고
추추가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쯤이면 많
은 절에서 방생법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방생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알고 바른 방생을 해야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른채 잘못된 방생
을 하면 악업만 더 쌓는 것입니다.
방생은 글자 그대로 생명을 놓아 주는
것입니다. 못 증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병마
의 고통에서 천재지변의 고난에서 건져 주
는 것이 방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사는데 이 방생 하나만
잘 행해도 무량한 선분의 근기를 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생은 이론도 필요없고
계획도 필요없고 연습도 필요없습니다. 오
직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배
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 같
이 행해야 할 일인 것이지 어떤 이유나 조

건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게 것도 방생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하는 방생
은 더욱 안될 일입니다.
물고기를 사서 물에 놓아주는 방생은 이
제 그만 뒤야 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해치
는 방생이 될 뿐이니 무슨 공덕이 되었습
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물고기 몇마리
놓아 주고 소원을 빌지만 그것도 다시 생
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
고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나마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실로 자기의 증생을 자유롭게
하는 방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생
과 미물을 볼때마다 “어서 그 축생미물의

방생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알고 바른 방생을 해야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른채 잘못된 방생
을 하면 악업만 더 쌓는 것입니다.
방생은 글자 그대로 생명을 놓아 주는
것입니다. 못 증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병마
의 고통에서 천재지변의 고난에서 건져 주
는 것이 방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사는데 이 방생 하나만
잘 행해도 무량한 선분의 근기를 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생은 이론도 필요없고
계획도 필요없고 연습도 필요없습니다. 오
직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배
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 같
이 행해야 할 일인 것이지 어떤 이유나 조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
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
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목고...
이 시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음-
-중요인연의 책들-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
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수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
반야심경·법성계
·화엄경약찬게·예불문
·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천혜의 전원주택
경기도 양평군 지계면 금액: 7,000만원
지목: 대지(2필지), 평수: 231평
건평: 26평(현재 화방) 기공보일러
감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사찰부지
경기도 양평군 지계면, 금액 6,500만원
지목: 준농림(III) 평수: 102평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02) 420-5474-5
FAX: (02) 413-7295
B, B: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테일오 대중포교
나레이션 형식 배경음악 감미
생활속에서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
을 접할 수 있도록 토굴에서 정진하
던 정우스님이 기존에 있던 형식을
벗어버리고 진리의빛 I은 (초심,
발심)을 진리의 빛 II는 (장경문)을
수창음반에서 만들고 금강반야바라
밀경은 (주)문화뮤직컴에서 만들어
9월13일부터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여태를 보느니라.
-금강경에서-
제작: (주) 문화 뮤지콤
(02) 561-3275